

현안과 과제

- 양회로 본 중국경제의 5대 향방
- 중국 고부가산업 육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시급!



1. 중국, 제12기 양회 개최

- 중국은 오는 3월 3일 개최 예정인 양회(兩會)를 기점으로 시진핑 정부의 향후 10년간 국정운영이 시작될 전망
 - 올해 12기(2013-2017년)를 맞는 양회란 중국에서 매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(전인대)와 정치협상회의(정협) 등 두 개의 중대 회의를 말함
 - 지난 1954년부터 시작된 전인대(全人大)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(의회) 성격을 갖고, 지도부 개편, 예산 심의 등을 결정하는 중대 회의로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개최
 - 국가 정책 자문기구 성격인 정협(政協)은 1949년부터 시작되었으나, 1978년부터 정식 양회로 편입된 회의로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개최
 - 이번 12기 양회에서는 국가주석, 총리 등 핵심인사와 정부조직 개편 뿐 아니라,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경제정책의 구체적 방향이 결정될 전망
 - 이번 12기 양회는 지난 제18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내정된 시진핑, 리커창 등 7명으로 구성된 차세대 지도부가 공식 임명될 전망
 - 또한, 지난 후진타오 정부에서 미 해결된 내수중심의 성장전환, 산업구조조정, 소득격차 해소, 부패개선 등 경제 구조적 문제해결 방안과 경기 부양을 위해 거시경제 조정 정책이 제시될 예정
 - 한편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~7.5% 대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, 유동성 등 거시지표도 지난해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

< 역대 중국 전인대의 의제 및 이슈 >

구분	의제	이슈
10기 (2003-2007)	내수확대, 산업구조조정, 고용확대	후진타오 정부 시작
11기 (2008-2012)	고용확대, 산업경쟁력, 내수확대	정부조직 대개편(大部制)
12기 (2013-2017))	성장전환, 소득분배, 산업구조조정	시진핑 정부 시작 정부조직 개편

자료 : 내·외신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
< 2013년 중국정부의 성장 목표 >

구분	목표	
	2012	2013(전망)
경제성장	7.5%	7~7.5%
유동성	14%	13%
소비자물가	4.0%	3.5%
실업률(도시)	4.6%이내	4.5%
신규고용	900만 명	900만 명

자료 : 中國政府工作報告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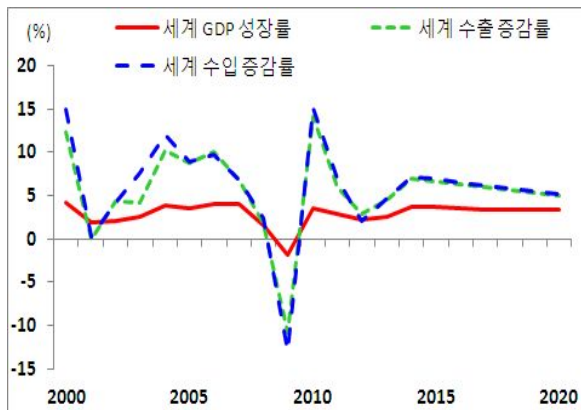
2. 2013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

① 경제성장 패턴 전환 : 내수중심의 성장 가속

○ 미약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반영,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내수중심으로의 패턴 전환이 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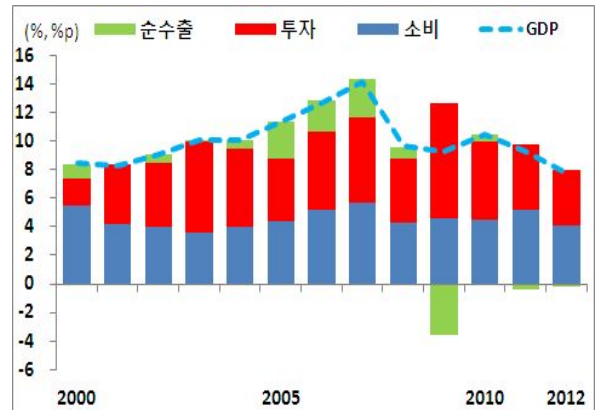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중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수출이 한계에 봉착, 내수중심의 성장 전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

< 세계 경제성장률 및 수출입 증감률 전망 >



자료 : Oxford Economics.

< 중국의 성장기여도 추이 >



자료 : 中國國家統計局.

② 거시경제 조정 : 재정 확대 속 통화 안정화

○ 경기부양을 위해 도로, 철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감세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나, 부동산 과열,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총통화량 안정화 노력이 지속될 것임

- 소비 부문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, 철도, 도로 등 기초건설 투자도 확대
- 한편, 부동산 시장 등 내수 경기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 방지를 위해 기준율 조정, 공개시장조작 등 금융통화 정책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

< 중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 정책 현황 >

구분	주요 내용
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2년 6월, 향후 1년간 절전형 가전제품, 소형차,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해 363억 위안의 보조금 지원 실시 - 2013년에도 보조금 지원 분야 및 지원폭 확대 지속 · 2013년 1월부터 생활·의료·친환경제품 등 780여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 · 2013년 2월부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23~24% 인하
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3년 철도 기초건설에 약 6,000억 위안 투자 전망 · 2012년 6, 8, 9월 철도 투자 6,300억 위안, 이 가운데 철도 기초건설에만 5,160억 위안 투자 진행 · 2015년까지 철도 기초건설에 약 2조 3,000억 위안 투입, 12만 킬로미터로 확장 계획 - 2013년 6,000킬로미터 이상 도로 확장 공사 전망 · 이 중 고속도로는 3,000킬로미터, 일반도로는 3,300킬로미터 확장 공사 예상
금융·통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 완화 정책 지속 전망 ·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2012년 2, 5월 각각 0.5%p 인하, 현재까지 20% 수준 유지 · 예대 금리도 2012년 6, 7월 2개월 연속 인하, 현재까지 각각 3.0%, 7.0% 수준 유지 -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조절 유지 ·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인민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푸는 역환매 조건부채권 방식 지속, 최근까지 2조 위안 이상을 시중에 공급 · 2013년 2월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을 발행, 약 9,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회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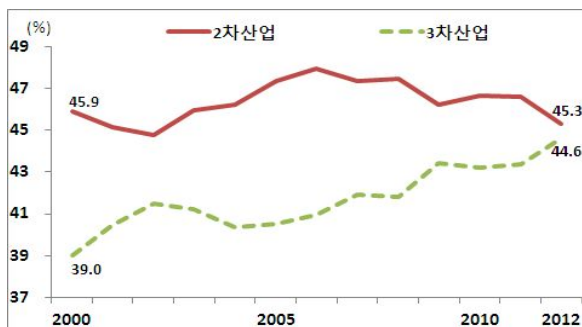
자료 : 中國鐵道部, 中國發改委, 中國財政部, 中國工信部.

③ 산업 구조 재편 : 고부가 서비스업 및 제조업 육성

○ 고부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쟁력 강화 예상

- 서비스업, 제조업 등에서 산업구조 재편이 지연
 - 2011년 3차 산업 비중은 44.6%로 2차 산업 45.3%에 근접했으나, 여전히 요식업, 도소매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
 - 한편, 제조업 비중도 정체되면서 제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 신산업 발굴 지연
- 이에 따라, 고부가가치형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전략이 추진될 전망

<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>



자료 : 中國國家統計局.

<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 정책 >

목표	친환경,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개편
추진 정책	기술혁신능력 제고, 신기술 개발
	친환경 저탄소 산업육성
	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한 산업 재배치
	M&A 지원, 중소기업육성 등 전략 추진
	반독점법, 가격법 등 경쟁법 강화
	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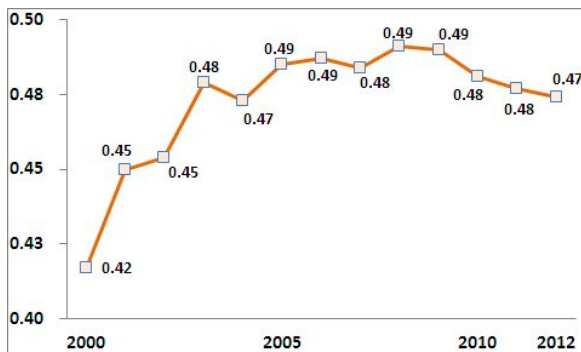
자료 : 中國社會科學院 工業經濟研究所.

④ 소득 분배 : 지역 및 계층간 불균형 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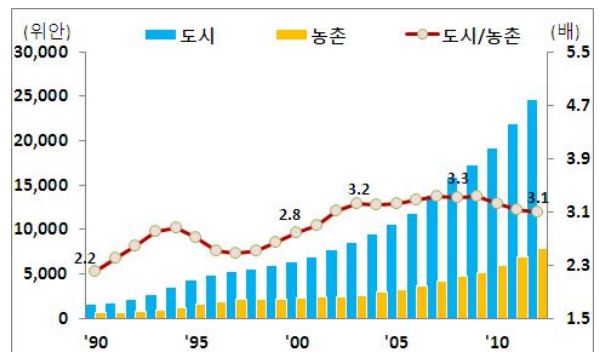
○ 향후 동부지역에서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개발을 가속화하고, 도·농간 소득격차 등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될 것임

- 2000~2011년 동부, 중서부, 동북 등 중국의 지역별 GRDP를 비교하면, 2000년 보다 중서부 지역의 경제력이 소폭 개선했으나, 여전히 동부 중심으로 발전
 - 지역별 GRDP 비중은 2011년 동부지역 52%, 중부 20%, 서부 19%, 동북 9% 순으로, 지난 10년간 동부지역 경제 편중현상 지속
 - 더욱이, 지역별 도시화 수준도 북경, 상해 등 연해지역과 사천, 귀주, 시장(西藏) 등 중·서부지역과 격차가 2~3배를 보이고 있음
-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.47로 지난 2000년 0.42에 비해 상승하는 등 소득 불균형 확대
- 도·농간 소득격차도 후진타오 집권기인 2003~2012년까지 농촌 대비 도시 소득이 3배를 유지

< 중국의 지니계수 추이 >



< 중국의 도·농간 소득격차 추이 >



자료 : 中國國家統計局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
⑤ 부패 개선 : 정계 투명성 제고

○ 반부패 법안 및 기구 신설을 통해 공산당 체제 강화뿐 아니라 국제적 국가 인지도 제고 예상

< 중국의 부패지수 추이 >

(단위 : p)

구분	2012	2010	2005	2000
OECD 평균	6.9	6.9	7.1	6.9
핀란드	9.0	9.2	9.6	10.0
중국	3.9	3.5	3.2	3.1

자료 : Transparency International.

주 :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을 나타냄.

3. 시사점

-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이 내수 확대,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
 - 첫째, 중국경제의 내수 확대 정책에 따라, 대중 수출구조 개선 및 유망지역 진출 전략 모색 필요
 - 향후 내수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소비재 부문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
 - 또한 향후 중국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 대한 도시화 추진으로 관련 인프라 및 건설 수요 등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관련사업 진출 방안 모색
 - 둘째, 서비스업 육성 및 가계 소득 증대에 따라 관광, 레저 등을 포함한 각종 민간서비스 시장 선점 필요
 - 향후 중국의 도·농간 소득 격차 해소로 농촌인구의 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서비스 부문 수요 증대 전망
 - 더욱이 향후 관광 및 레저 등 여가산업 부문 시장 확대 기대
 - 셋째, 중국 산업 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위한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 시급
 - 향후 중국의 산업은 친환경 저탄소 산업 부문 뿐 아니라, 산업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, 중소기업 등 기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
 - 이에 따라, 국내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역량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 노력 지속 필요
 - 넷째, 반독점법, 가격법 등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강화에 대응해 대중 진출 시 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숙지 및 검토도 요구됨
 - 중국은 자국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우려될 외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, 가격법, 반부당경쟁법 등 경쟁법을 강화
 - 이에 따라, 반도체, IT 등 기술집약업종의 대중 진출 기업의 경우 관련법 검토 및 숙지가 필요

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(02-2072-6225, hzz72@hri.co.kr)